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월간 내일



07
Vol. 542

행복 일터
●○○
Intro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아십니까?

희망 일터
○●○
Y&I
유한킴벌리㈜는
어떻게 '존경받는 회사'가 되었을까

힐링 일터
○○●
미디어 속 노동읽기
라떼는 말이야~
나도 혹시 꼰대는 아닐까요?

Contents

2020. 07
vol.542



벌써 7월이라니, 시간 참 빠르네요! 04
다들 여름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코로나19가 물러나지 않는 한, 08
이번 여름휴가는 집에 '콕' 박혀서 보낼까 해요.
그간 밀렸던 독서도 하고, 시원한 막국수는 배달시켜 먹고요. 12
그런데 막국수 배달 온 기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하네요?
'늘 바라봄'의 의미를 가진 저 늘봄 과장이 안 들어볼 수 없겠죠? 16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만나봤어요.

행복 일터

Intro 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아십니까?

Topic 32
코로나19 직격탄
우리는 특고입니다

People 36
왜 '배달'은 직업이
아니라고 하죠?

System 40
두둥!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Plus 44
고용노동부가
안전까지 책임질게요

Post 48
이번 달이 마지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한
긴급지원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52

56





희망 일터

인생 2막 62
꿈이 있다면 '누구나 청춘' 아닐까요?
– 김동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명장의 시간 66
자격증 부자가 느려도 꾸준히 걷는 비법
– ㈜광성계측기 임병천 대표

Y&I 68
유한킴벌리(주)는
어떻게 '존경받는 회사'가 되었을까

더불어 세상 70
우리는 '숲'이라 부르고, '숨'이라 읽습니다

기술이 힘! 74
신중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뿌리산업
녹색산업설비

인생설계카드 76
국민내일배움카드가
'플로리스트의 꿈' 이뤄드릴게요

정책이슈 78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가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82

고용노동 뉴스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62
라떼는 말이야~ 나도 혹시 꼰대는 아닐까요?

시사백과 66
오! 마이 컬러풀 경제용어

직장탐구생활 68
프로는 '품격 있게 퇴사' 합니다

고민타파 70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래도 쉴 권리는
누려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 74
휴양지에서 즐기는 이색 음료
이젠 집에서 즐겨요

직장인 건강상식 76
겨터파크 시즌이 돌아왔다
땀 냄새, 이제 그만 관리 좀 합시다!

주말에 뭐 할래? 78
코로나 시대 첫 여름휴가,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애독자 모의고사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등권 강남 라 00389(등권 542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아십니까?

전화 한 통이면 쏜살같이 달려오는 퀵서비스는 업무환경의 안락함을 더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19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일한 만큼만' 소득을 얻는 이들의 생활은 일감이 줄어들수록 크게 흔들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딱 지금처럼 말이죠.

퀵서비스 기사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죠.
일감이 끊기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직업생활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그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모습을 미리 만나 볼게요.

08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현황



16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대효과



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확대



24
코로나19 지원정책



코로나19 직격탄 우리는 특고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생활 온도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한복판에서
서늘함을 느껴야만 하는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현황을 살폈습니다.

165만 8천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한 눈에 들여다보는 특고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 항만 · 시장 · 철도 ·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옆집 아저씨도 '특고'

특고라고 하면 택배기사, 대리운전사 등처럼 특정 직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보다 더 많은 형태의 특고가 있습니다. 특고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특고는 무려 165만 8,000명! 옆집 아저씨도 특고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특고로 일하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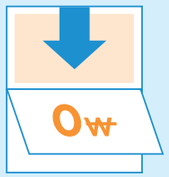
가사노동자
66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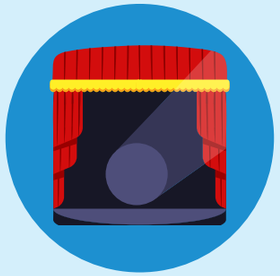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사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발표한 '가사노동자들의 코로나19 이후의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2019년 월평균 수입은 107만 400원이었던 반면 2020년 4월에는 66만 5,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사용주들의 '오지 말라'는 통보 때문인데요. 감소한 소득을 충당하는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54.7%가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출(14.8%), 저축통장 해지(11.7%) 등의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는데요. 대출이나 지인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응답을 모두 합치면 가사노동자들 5명 중 1명은 빚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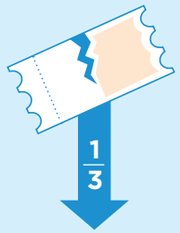
방과 후 수업 강사
13만 명



방과 후 수업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육 시스템이죠. 하지만 지난 2월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방과 후 수업이 중단되면서 이를 생계로 해온 강사들의 수입은 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 가까이 수입이 없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개인 사업자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도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온라인 개학'이 시동을 걸고 있으나, 방과 후 수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체험을 위주로 하는 수업의 성격상 온라인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온라인 개학이 되어도 재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13만 명 방과 후 수업 강사들의 생활보장권은 어떻게 보장하면 좋을까요.



공연업계
409회



공연, 행사 취소로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들의 고충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연극협회는 지난 2월에 취소된 공연 회차만 409회로, 약 400개 이상의 극단이 피해를 본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수많은 무용수, 제작인은 현재까지도 '집단 실업'에 처해있습니다. 소극장을 운영하는 극단들 역시 대관료를 지불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집계된 연극 매출액은 기존 대비 1/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배기사
30%



코로나19로 많은 특고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반면, 전례 없이 호황을 누린다는 '오해'를 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기사들이 그런데요. 이는 길어진 '집콕' 생활로 택배기사들의 일감이 30% 이상 증가된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늘어난 일감은 택배기사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된 노동현장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업무를 마다할 권한이 없어 과로사로 이어지기 일쑤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배송노동자의 과로사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감염위험에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운전기사
14%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고들의 사정은 미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 역시 전체 직원 중 14%인 3,700명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더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버 플랫폼에서 일하는 운전기사들입니다. 우버뿐 아니라 중국의 디디추싱, 인도의 올라, 동남아시아의 그랩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에 달하는 운전기사들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은 사실상 거의 없어 특고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글 황정은 | 사진 이옹기



왜 '배달'은 직업이 아니라고 하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전례 없이 바빠진 시장이 있죠? 바로 배달시장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4월 집계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2조 26억 원으로 매달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배달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라이더들의 권리도 커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저자이자 라이더로 활동 중인 박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라이더는 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지만, 소속된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 거든요. 보험료나 유지비를 모두 자체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Q_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직업이 아닌 이것'은 당연 라이더를 지칭하는 거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말해요.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이고 편의점이나 햄버거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도 포함하죠.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닐까?'란 생각은 사실 제 경험에서 나왔어요.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섭렵했고 지금도 맥도널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동네 배달대행 등을 통해 라이더로 일하고 있죠.

Q_ 요즘은 빠른 배송을 두고 '치타배달'이라고 표현한다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라이더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노동환경은 어떤가요.

플랫폼을 통해 음식배달을 요청하면, 늦어도 60분 안에는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60분 중에 15분은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라, 사실 라이더에게 주어진 시간은 45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건을 배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한 건당 배달료는 3천 원 정도니까 보통 여러 개의 배달을 묶어서 갑니다. 그래야 수입이 남으니까요. 보통 3~4개의 주문을 한 번에 처리하다 보니, 정말로 치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Q_ 그래도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니까, 많이 버는 라이더도 있고 그렇지 않은 라이더도 있겠죠. 하지만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일한 만큼 고스란히 수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라이더는 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지만, 소속된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거든요. 보험료나 유지비를 모두 자체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온전히 자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 리스크가 훨씬 더 클 때도 많고요.



산재보험의 경우 라이더는
당연 가입 대상자예요.
사고의 위험이 높은
라이더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주고
있죠.



Q_ 라이더는 '산재가입 당연 가입 대상자'예요. 사고 부담 책임이 라이더에게 있다니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맞아요. 산재보험의 경우 라이더는 당연 가입 대상자예요. 사고의 위험이 높은 라이더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산재적용 제외신청서'에 있어요. 만약 점주가 "산재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쓰면, 월 1만 5천 원씩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라이더들이 산재보험에 들지 않아요.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보니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가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에 입사할 때, 4대 보험 가입이 당연한 것 처럼요.

Q_ 전국적으로 라이더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쉽게도 정말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산업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 수 파악도 쉽지 않거든요. 플랫폼에 속하지 않고 전통적 의미의 배달을 계속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신고가 안 되면 집계가 안 되는 거죠.

Q_ 라이더들의 권익 개선을 위해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을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우선 플랫폼 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관행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문자 하나로 여러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라이더들이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니까요.

보험료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 고민 중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 유상운송보험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에요. 보험료 자체가 비싸거든요. 자차보험을 제외하고서라도 연간 보험료가 2천만 원대를 기록하다보니, 목숨 걸고 치타배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Q_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적용을 너머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법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산재보험은 물론이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라이더의 삶도 개선되겠죠?

그럼요.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이 현실화되면 고용보험 역시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산재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료 징수도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회보험이 조금 더 현실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업급여'라는 보호막이 생기는 고용보험도 물론 큰 장점이 있지만, 수입이 높지 않은 배달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1~2주 쉬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나은 거죠. 반면 사회보험은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해서 분담하니까 여러모로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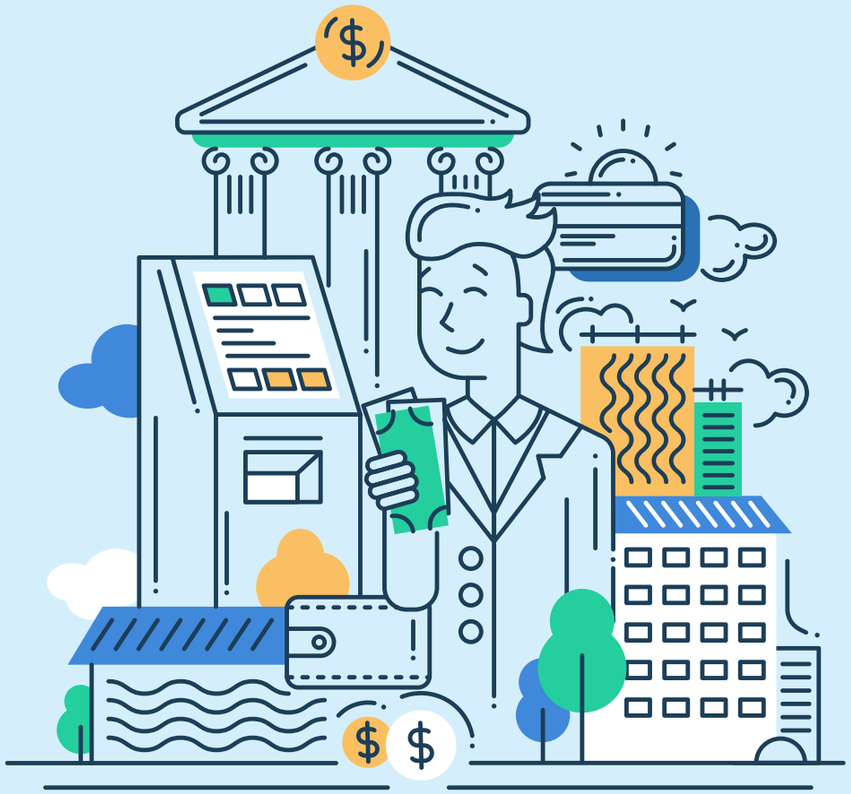
Q_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플랫폼 사업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라이더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어날 거고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일하자고요!









두둥!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댈 곳 없는 특고들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은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코로나19 등의 위기상황에서도 실업급여 등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준비 중입니다. 누구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특고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을 유도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제어할 수 없는 경제 불황으로 어쩔 수 없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이에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던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앞으로는 불안한 고용환경에 떨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삶이 마침내 기지개를 펴게 된 것이죠!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특고의 대규모 실직 사태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실업 자체를 예방할 수 있어야겠죠?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일 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❶ 직장생활의 걸림돌 없애주는 고용안정장려금

자녀양육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활용하곤 하죠? 바로 이 제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랍니다. 그야말로 일하면서 가정도 지킬 수 있게 한 '실업 방지용' 제도인 셈인데요.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한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 역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등도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보장제도로, 이에 따른 인건비나 임금증감액,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❷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도 일정 부분 보험료를 감수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혜택이 필요할 텐데요. 교대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제공받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고용촉진지원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를 위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역시 고용보험이 보장하는 혜택이죠. 이밖에도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금, 전문인력채용 지원금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❸ 근로자도 사업자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경영악화로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근로자 감원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 휴직 등)를 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종의 포상을 해주는 건데요. 사업주는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직을 면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석이조의 제도죠.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사업주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종류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 적재적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답니다.



❶ 재취업할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역시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밖에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한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한도로 지급됩니다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60일을 한도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❷ 실직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해요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광역구직 활동비, 재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실직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와 더불어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고용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전까지 책임질게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준비하는 고용노동부는 특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고의 산재 위험이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인데요.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고 있는 그간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방문서비스 및 화물차주 특고 편

기존	확대
9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대리운전기사나 택배기사 등 특고는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개인사업자처럼 활동할 수 있어 노동자와 사업자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이미 9개 업종의 특고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 설치기사나 화물차주 등처럼 9개 직종에 속하지 않은 특고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9개 직종에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의 특고를 추가한 것이죠. 덕분에 지금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화물차주 역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건설기계 특고 편



기존	확대
건설기계 1종	건설기계 27종

노동 강도가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다양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고위험 작업도 많은데요. 문제는 그간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 기사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 기사들은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상에 기재돼 있는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다루는 특고 역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더불어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를 위한 보호 적용기준도 마련해 특고 역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안전 · 보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이라는 노동기본권을 법으로 정해 특고들의 일할 권리를 지켜낸 것이죠!

중소기업 사업주 편



기존	확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기존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들고 싶다면 사업주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란 여간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이에 대한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을 완화시킨 데에는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요건으로 적용된다는 사실!



1인 자영업자 편



기존	확대
12개 업종	전 업종 가입 가능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아무리 매출이 안 좋아도 엄연히 '사업주'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정부에서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12개 업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업종을 불문하고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종전 12개 업종에 한해 허용했던 산재보험을 무려 '전 업종 가입 가능'으로 범위를 확대한 건데요. 불을 많이 쓰는 음식점 사장님도 이제는 자영업자의 설움을 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산재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특고 38만 4천 명,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136만 5천 명이 추가로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더욱 촘촘해지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안전망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글 편집실 | 사진 박찬혁

이번 달이 마지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한 긴급지원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뚝 끊긴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나, 무급 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발생 직전(2019년 12월~2020년 1월 기간 등 적용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동 기간 동안 타사업장 고용보험가입이 10일을 초과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신청방법을 꼼꼼히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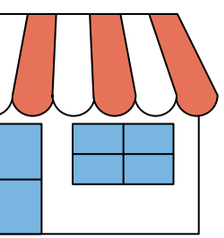
특고 & 프리랜서 매월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이 노무 제공 일수가 10일 이상)했거나 매월 25만 원(2019년 12월~2020년 1월 합산 금액이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종 특성상 지난해 12월부터 1월 사이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전년 동월(20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년 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올해 1월부터 특고 ·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라도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올해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라면 소득 · 매출 감소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서류 준비하세요!

❶ 연소득 입증서류(택1)
1)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2)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3)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❷ 지원대상 요건(택1)
1)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수수료 · 수당지급 명세서 등(권장)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3) 20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20년 1월의 통장 입금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19년 12월~20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❸ 소득 감소 증빙서류(택1) * 2020년 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함
1)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 ·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2)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제출)
3)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0년 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3-1) 2020년 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2020년 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내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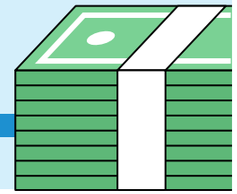
*필요 서식은 covid19.ei.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2019년 12월~2020년 1월 동안 자영업으로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도 가입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동 기간 동안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이면서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무급휴직자로서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적격판단 시 지원(단, 적용기간에 타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고용보험에 10일을 초과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하니 걱정 마세요! 단, 유흥 · 향락 · 도박 등 일부 업종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이후부터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역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됐다고 볼 수 없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요.

반대로 2월 이후 폐업한 경우라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짐작할 수 있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지원금은 올해 3~4월의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을 비교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신청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25% 이상 또는 50% 이상 감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고 노동자 & 프리랜서도 동일).

과거소득		현재 소득
2019년 평균 : 180만 원	VS	150만 원
2019년 3월 : 100만 원		
2019년 4월 : 150만 원		
2019년 12월 : 300만 원	→ 감소폭이 가장 커 더 유리한 기준 선택	
2020년 1월 : 50만 원		



증빙서류 준비하세요!

연소득 또는 연매출 입증서류는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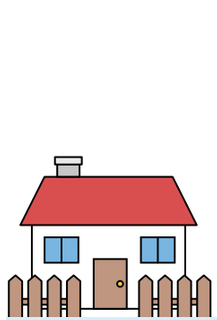
❶ 연소득 입증서류(택1)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2) 종합소득세 신고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3)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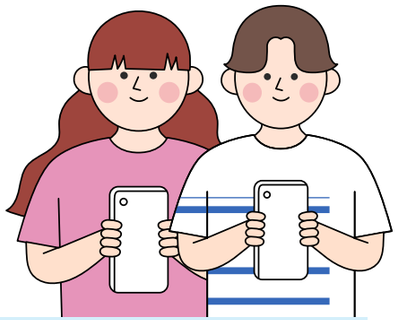
❷ 연매출 입증서류(택1)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4)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5) 그 외 입증 가능 서류(사업자 통장 등)

❸ 지원대상 요건: 사업자 등록증
❹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택1)
* 2020년 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매출이 확인 가능해야 함
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2)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3)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20년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 월급의 70%)을 받지 않고 쉬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한데요. 중도 퇴사를 한 경우라도,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수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정부에서 실시한 지원금(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중복 수급이 어렵고요.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차액을 지원합니다.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 원 수급 시(2020년 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 원 지원
-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20년 3~5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20년 3~4월 간 60만 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 원 지원
-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20년 3~5월) → 차액 지원
  예) 3월 · 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 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 원 지원
-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증빙서류 준비하세요!

❶ **연소득 입증서류(택1)**
1)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2)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3)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❷ **무급휴직 확인: 〔서식10〕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자 확인서**

*필요 서식은 covid19.ei.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opeful



28 꿈이 있다면 '누구나 청춘' 아닐까요?

32 자격증 부자가 느려도 꾸준히 걷는 비법

36 유한킴벌리(주)는 어떻게 '존경받는 회사'가 되었을까

40 우리는 '숲'이라 부르고, '숨'이라 읽습니다

44 신중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뿌리산업 녹색산업설비

48 국민내일배움카드가 '폴로리스트의 꿈' 이뤄드릴게요

52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가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56 고용노동 뉴스

글 박향아 | 사진 이옹기





꿈이 있다면 ‘누구나 청춘’ 아닐까요?

김동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꿈과 적성은 청춘들의 몫이고, 나이가 들면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제2의 삶을 찾은 김동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여전히 꿈을 가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꿈이 있는 한 누구나 청춘이라는 그의 청춘일기를 엿봤습니다.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같은 사람들

“내가 맨날 기다리는 제일 반가운 사람이 왔네. 더운데 어여 들어와요.”

김복동 할머니(가명)는 김동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가 방문하는 날이면 골목 어귀까지 나와 고개를 쭉 빼고 기다리십니다. 비가 오는 날도, 오늘처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도 예외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 기다리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기다리는 시간마저 즐겁다’고 하시니, 할머니 댁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왜 나와서 기다리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죠? 천장에 물새는 건 이제 괜찮고요?”

오늘도 양손 무겁게 할머니 댁을 찾은 그는 늘 그렇듯 할머니 건강부터 챙깁니다. 아픈 곳은 없는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확인한 후에는 집 안 곳곳을 살펴봅니다. 얼마 전 수리를 마친 천장에서 또다시 물이 새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에야, 자리에 앉아 음료수를 마십니다. 집에 오면 주려고 할머님이 아껴놓은 건강 음료, 그 마음을 알기에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맛있게 들이킵니다.



‘이제 막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한 아이들과의 시간만큼이나 고단한 인생을 걸어온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단칸방에서 홀로 살아오신 김복동 할머니에게 김동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는 고맙고 소중한 친구입니다. 조용하던 휴대전화가 매일 울리기 시작한 것도, 찾아오는 이 하나 없던 혼자만의 공간에 누군가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도 그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서 동사무소에서 처음으로 쌀을 받았는데, 방 한편에 놓인 쌀 포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몰라요.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받는 것도 도와주고, 전화해서 안부 물어주고, 집에 찾아와서 내 얘기도 들어주고… 최고로 고맙지 아무렴.”

할머니의 건조하던 일상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되어준 사람.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가 더없이 고마운 이유입니다.

인생 2막, 타인을 위한 삶을 선택하다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로 행복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0대 후반, 개인 사업을 접을 때만 해도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디딤돌 삼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감에 부풀었던 그.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력을 곧잘 증명해주던 MBA 학위가 오히려 취업 걸림돌이 되었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고졸’ 학력만을 기재한 이력서로 겨우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으니 말입니다.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가 워낙 없다보니, 경비원 생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마저도 인원 감축으로 인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허무했어요. 속도 상했고요. 그즈음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재도약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 직업적성 흥미검사를 통해 저의 강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도 경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이때부터 생겼죠.”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채워 나갈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그는 재도약프로그램 수료 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가 강사 양성과정’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청주 시내 초 · 중 · 고등학교와 지역 아동센터에서 진로 및 직업윤리, 인성 분야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일찍이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부모와의 갈등이나 진로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와 결이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이냐 아이들이냐, 대상만 다를 뿐 인생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선 똑같죠.”

아이들을 만날 땐 인생을 먼저 걸어온 선배의 마음으로, 어르신을 만날 땐 부모를 챙기는 자식의 마음으로 임한다는 김동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96세 노모를 모시고 있다는 그는 엄마를 대하듯 그렇게 어르신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누군가의 곁을 지킨다는 것

그가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곧잘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을 찾는 즐거움을 함께 알아 가면 좋겠다고요. 그러다 문득 ‘나의 또 다른 길은 어떤 길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막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한 아이들과의 시간만큼이나 고단한 인생을 걸어온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생각이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게 곧장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그는 올해 1월부터 청주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를 통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전반을 돕는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곱 분의 어르신 댁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분들의 삶이 희로애락을 오롯이 품은 한 권의 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홀로 살다보니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어지고, 기회가 적다보니 사회와의 단절이 빨라지는 것뿐이죠. 그 단절의 고리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가 끊어주는 거예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류를 도와드린 어르신이, 받은 지원금으로 밥 한 끼 사고 싶다며 환하게 웃던 날을 그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누군가와 식사 약속을 하고 밥을 사주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웃으시던 어르신. 그 작은 마음이 고마워서, 감동이라서, 그는 오래도록 어르신 곁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
김동일 선생님이
해내고 계십니다!

Send a letter

내이가 들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김동일 선생님의 얼굴에
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채용하게
됐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 1회 방문이라는 정해진 업무 외에도
어르신들의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
달려가시는데요.
어르신들의 크고 작은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 채워주고 계세요.
코로나19로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유일하게 세상과 만나
는 날인데”라며, 문 앞에서 안부만 묻
고 오는 한이 있어도 빠짐없이
방문하세요. 정말 존경스럽죠.
어르신들을 향한 진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동일 선생님 덕분에 많은 어르신의
삶이 더 넉넉하고 행복해진 만큼,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인은미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자가 느려도 꾸준히 걷는 비법



㈜광성계측기
임병천 대표

더딘 아이였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고, 생각의 속도도, 배움의 속도도, 꿈을 가지기까지 걸린 시간도 모두 느렸지만 돌이켜보면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올해로 42년차에 접어든 중견기업 ㈜광성계측기의 임병천 대표는 대한민국이 인정한 기능한국인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전기 계측 및 전력량 제어 분야 전문 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임병천 대표를 만났습니다.



'배움'의 가치를 깨닫다

임병천 대표는 1951년 2남 2녀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는 열심히 사셨지만 추운 겨울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살림에 어린 자식들까지 건사해야 했던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굴리셨죠. 그래도 아버지는 낙천적이셨다고 합니다. '반찬 없어도 간장만 있으면 밥 먹는다'며 허허 웃으셨고, 그는 그런 아버지 성격을 고스란히 닮았습니다.

"우리만 없이 사는 게 아니었고, 그땐 다 어려웠으니까요. 불만을 갖기 보다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공부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그냥 놀기 좋아하는 철부지였죠."

그랬던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공고 3학년 때 선박전기수리를 하는 회사에 실습을 나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2년 동안 공부하며 자격증을 딴 친구들이 자신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퍼뜩 정신이 들면서 돈을 벌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공부를 시작해서 1년 4개월 만에 전기주임기술자 자격증을 땄어요. 제 첫 자격증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삶의 방향을 정해준 것 같아요."

이후 임병천 대표는 끊임없이 공부에 전념하며 계량기사, 품질관리기사 등 14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격증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배워두면 쓰일 일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며 공부해두었던 것이 사업의 밑거름이 된 것이죠. 그는 지금도 배우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외국의 산업 전시회도 해마다 빼놓지 않고 참관하고, 궁금한 제품은 구매해서 분해를 해보기도 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두루 관심을 가지며 살피는 것이 언젠가는 쓰임이 있는 자양분이 될 것임을 이미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전기계측분야의 1인자를 향한 40년 외길

"어차피 시작한 거, 이왕이면 1등 해보고 싶어요." 임병천 대표는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합니다. ㈜광성계측기는 1979년 창립 이래 42년을 맞이한 중견기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115억 원을 달성했고, 2018년에는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하는 동시에 일본시장 조사를 100일 동안 강행했습니다.

더딜지언정 뒷걸음질 친 적 없이 성장세를 이뤄온 기업의 창업주임에도 그는 여전히 1등이 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해마다 수익의 10% 이상은 반드시 연구개발비로 투자했어요. 40년 외길만 걷다보니 알겠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그 사이를 놓치면 금방 도태된다는 것을요."

그는 40여 년간 지시전기계기, 디지털계기 등 108종의 관련 제품을 연구소와 함께 개발했습니다. 그 중 휴대용 계기용 변성기(MOF) 고장 여부 및 비오차 측정 장치는 세계 최초의 휴대용 변류기 비오차 시험기이기도 합니다. 꾸준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로 이어졌고, 세계 최초의 기기 개발의 성과를 달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 삶의 반려, 내 인생의 반쪽

임병천 대표는 사업에 있어 외길을 걸어왔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결코 혼자 걸은 걸음이 아닙니다. 회사생활을 할 때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 저녁 9시 이전에 귀가한 적이 없고, 사업을 시작하고는 주말마저 회사를 나갔으니, 아들 둘을 키우고 집안의 빈 자리를 채운 건 온전히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광성계측기는 없었으리라 단언합니다. 오직 회사 일만 바라보고 달리는 저를 믿어주고, 누구보다 지지해준 진정한 지원군이죠. 지금은 직원들과 제 사이를 이어주는 든든한 이음새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신이 이룬 성과를 아내의 덕으로 돌린 임병천 대표는 직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한 결 같이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다보니, 스스로에게 엄청 엄격한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직원들에게도 칭찬 보단 쓴 소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직원 모두와 40년간 함께해준 동생 그리고 연구소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3년 전부터 대표로 선임된 장남과 대기업을 사직하고 합류한 차남이 경영을 주도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임병천 대표는 회사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존중'이 사람을 대하는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내 식당에서 점심을 마친 후면 늘 직원들이 식사 후 마실 물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으로 존중의 의사를 표현하곤 한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경력이 많든 적든 모두 함께하는 '가족'이고,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이뤄온 ㈜광성계측기는 그래서 지금, 더 탄탄합니다.









편집 임기현 | 자료 · 사진 제공 레이버플러스

유한킴벌리(주)는 어떻게 '존경받는 회사'가 되었을까

회사와 직원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개념 대신 '회사와 직원은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을 이끌어온 곳. 착한 기업 유한킴벌리㈜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5위

2006년~2018년
'열린 경영실천' 누적 참여자수
52,745명

1984년~2014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성과
5천 만 그루

'노사' 아니고요, '노경'입니다

지난 1970년 3월 30일, 유한양행과 킴벌리 클라크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한 1984년으로부터 딱 30년이 되던 해, 국민 1인당 1그루에 해당하는 5,000만 그루의 나무를 가꾸는데 성공했으니까요. '강산을 푸르게 하리라'는 약속을 지켜낸 유한킴벌리㈜의 착한 생각은 노사문화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노사'라는 말 대신 '노경'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들의 착한 생각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노경이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서로를 파트너로 인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사소한 표현 하나까지도 '상호간 존중'의 의미를 담고자 했던 유한킴벌리㈜의 탄탄한 신뢰 구도는 경영진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전, 충주, 김천 등 각 사업장의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건데요. 매달 개최되는 '열린 임원회의' 역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 회사의 경영현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부가 함께하는 '노경 대토론회', '고용안정 및 사기진작토론회' 등을 통해 다채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유한킴벌리㈜의 '열린 경영실천' 누적 참여자수는 무려 5만 2,745명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성진 유한킴벌리㈜ 노경본부 본부장은 "노경 대표자들이 모여 그해 이슈나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가 쌓였고, 신뢰가 바탕이 되니 경영 효과는 자연스레 선순환하고 있죠"라고 말합니다.
회사와 직원이 어디서든 직접 소통하는 이들의 노경문화는 유한킴벌리㈜만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율을 보장합니다

유한킴벌리㈜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존경받는 회사,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결과이기에 의미가 큰데요. 그 이면에는 좋은 일자리 환경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면 행여 승진에서 누락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유한킴벌리㈜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시차출퇴근제를 이미 1994년부터 도입한 점도 눈에 띕니다.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 사무직 워킹맘 · 워킹파파들이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한 건데요. 생산직의 경우 '4일 일하고 4일 쉬는' 평생학습 기반의 4조 2교대 근무제도로 개인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영업직의 경우에는 현장출퇴근제를 실시해 불필요한 동선을 확 줄였죠.
유한킴벌리㈜의 독보적 기업 문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건데요. 특히 유치원부터 대학졸업까지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출산축하금, 재충전휴가 등은 직원들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직원의 성장으로 직결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유한킴벌리㈜의 '성장을 통한 성과공유제'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2014년 7월, 노경은 노경 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임금단체협상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그 시간을 차라리 협업을 위해 매진하기로 한 건데요. 그 결과 단체교섭을 담당하던 노사협의회의 업무가 확 줄었습니다.
"성장을 통한 성과공유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영실적이 나오면 직원들이 본인의 성과금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신뢰는 저절로 쌓일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거죠."
조성진 노경본부 본부장은 회사가 직원을 믿고, 직원이 회사를 믿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힘이 나온다고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영지표에 따라 성과급이 등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공을 무엇보다 지지하는 직원들이 있는 이상, 유한킴벌리㈜의 성공가도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뿌리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문화'에서 더 나아간 '노경문화'를 만들고 있는 유한킴벌리㈜.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에는 다 비결이 있었습니다.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구축한 유한킴벌리㈜

사무직 워킹맘 · 워킹파파들을 위한
시차출퇴근제

생산직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응원하는
평생학습 기반의 4조 2교대 근무제

영업직 직원들의 실속 있는 동선 확보를 위한
현장출퇴근제

유치원부터 대학졸업까지 학자금 걱정없는
학자금 지원제도

일과 가정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출산축하금 & 재충전휴가



글 황정은 | 사진 이용기

우리는 ‘숲’이라 부르고, ‘숨’이라 읽습니다

숲을 마주하는 것은 곧 사람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일임을, 숲 안에 들어와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숲과사람’에 모인 이들입니다. 넉넉한 나무가 너그럽게 품어주는 숲, 그 치유에 매료된 사람들이 숲에서 찾은 것은 다름 아닌 ‘숨’입니다.

숲과 사람을 통해 숲 교육을 받은 인원

10만 명

설립 초기에 비해 늘어난 조합원 수(4대 보험 가입 기준)

28명

숲과사람의 연 매출 증가액

7억 **6**천만 원



숲 해설가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2017년 9월 산림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숲과사람은 숲 해설가 다섯 명이 모여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숲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주는 숲 해설가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숲에서 ‘먹고’ 또 ‘사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숲해설가는 7개월, 9개월 등 단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일을 해 나가는 구조예요. 저 역시 이러한 계약 관계 아래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요. 헌데 어느 순간 질문이 들더라고요. ‘지속가능한 숲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의 일은 지속가능하지 못한가’ 라고요. 기본적인 근무 구조를 바꿔봐야겠다 싶었고, 그 의지와 바람이 모여 지금의 숲과사람이 탄생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후, 박희경 대표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이뤄져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숲과사람’ 이라는 이름도 만들고 정관도 만들었죠.

“처음에는 막연했어요.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신감을 얻었죠. 비영리 민간단체는 수익을 내기 어려울 거라는 고정관념도 깰 수 있었고요. 덕분에 ‘숲과사람’을 만든 후 지금까지 계속 신나고 들뜬 상태인 것 같아요.(웃음)”





숲 해설가,
숲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이토록 숲에 매진하고 빠져있는 사람이라니. 문득 박희경 대표가 어떻게 숲해설가가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숲에 흠뻑 젖어들게 했는지 듣고 싶었죠. 이 질문에 박희경 대표는 '숨 쉬고 싶어서' 라고 답했습니다.

"고향이 대전이에요. 남편이 포항 사람이어서 결혼 후 포항으로 오게 됐는데, 대전과 문화가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무엇보다 포항 사투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세게 느껴져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다가 이러지 말자,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만 살 것인가, 싶어서 포항을 공부하게 됐고, 그 때 처음으로 '숲해설가'라는 직업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헌데 숲을 공부할수록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숨통이 트이고 싶어 숲을 찾았는데, 사람을 이해하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박희경 대표 뿐 아니라 '숲과사람'에 온 많은 숲해설가들 역시 비슷한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마음의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을 때 모두 숲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숲이 사람의 흠결과 연약함을 넉넉히 안아주는 존재였기에 가능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숲'을 만납니다

숲을 공부할수록 사람에게 정착하게 됐다는 박희경 대표. 그녀 자신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까요. 박희경 대표는 숲을 찾으러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과 소통하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숲의 지식'이 아닌, '숲의 정서' 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죠.

"숲해설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숲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로 귀결되죠. 예를 들어 저 역시 숲을 잘 소개하기 위해 제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먼저 잘 파악하려고 해요. 그 분에게 필요한 '맞춤 숲'을 알려드려야 하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사람들 마음에 다양한 정서가 숨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쩌면 숲해설가는 사람들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불러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숲을 알려주기 위해 숲과사람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매우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이 숲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죠.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지난 해 숲과사람은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7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산림교육 서비스로 이만큼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의미겠죠. 박희경 대표는 "숲과 사람에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숲해설가들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 이라고 단언합니다.

"숲은 계절에 따라, 낮과 밤에 따라 모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숲은 변하면서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 또 늘 변해요. 그 미묘한 변화와 지속성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죠. '숲'이 우리에게 '숨'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이 숲을 통해 숨을 쉴 수 있도록, 저희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15년 동안 숲과 함께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다는 박희경 대표. 그녀는 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숲과사람이 더욱 건강하게 지속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 유행처럼 생겨나는 사회적 기업을 넘어 진심으로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숲과사람은 숲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 안에 있는 숲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숲은 왜 필요할까요?



박희경 대표

지구를 숨 쉬게 하기 때문이죠. 이건 곧 사람을 숨 쉬게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숨 쉰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공현영 유아숲지도사

우리는 '내 마음이 왜 필요한지, 내 몸이 왜 필요한지'를 묻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숲도 마찬가지예요. 숲은 우리 삶의 일부이자 우리를 양육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미희 유아숲지도사

저는 제 삶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시기에 숲해설가가 됐어요. 숲을 알아가면서 정말 행복했죠. 결국 숲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종순 교육이사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실내에만 있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때 저는 숲의 중요성을 더 실감한답니다. '숲의 치유력'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어요.



박선희 유아숲지도사

편안함인 것 같아요. 자연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자연의 일부라는 중요한 사실을 매일 숲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글 황정은 | 사진 이옹기

신중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뿌리산업



뿌리산업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산업 현장을 세우고 일으키는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대전캠퍼스 녹색산업설비과에서는 뿌리산업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 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견고해지는 기술이 무르익는 현장,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녹색산업설비과를 다녀왔습니다.

녹색 산업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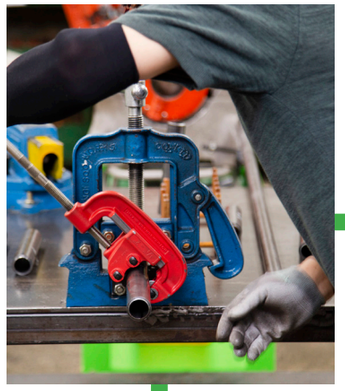


기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 녹색산업설비과

우리나라 경제력이 높아지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한 뿌리산업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모습을 점차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근간은 유지한 채, 최첨단 산업에서 요구하는 얼굴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대전캠퍼스 녹색산업설비과에서는 시대에 대응하는 뿌리산업의 모습을 그대로 접할 수 있습니다. 고도수처리 및 초순수(Ultra Pure Water)를 생산하는 수처리 플랜트 설비기술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태영열, 공조, 가스, 에너지관련 설비 분야의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죠.

입학이 곧 취업! 평생기술로 평생직업 가질 수 있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나 앞으로 40년 후나, 뿌리산업 분야의 기술은 늘 필요했고 또 필요할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혹은 건축이 완료된 시설을 관리할 때 이 분야의 기술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꾸리려는 신중년에게 녹색산업설비과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용접과 공조냉동설비, 설비자동제어, 가스설비, 에너지관리설비 등의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대전캠퍼스 녹색산업설비과는 꼼꼼하고 알찬 커리큘럼과 깨끗한 시설로 수강생들에게 쾌적한 배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중년 학생' 들은 오늘도 용접실에서 굵은 땀을 뻘뻘 흘리며 용접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녹색산업설비 교육과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설비기초실습

배관기초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수공구를 이용해 수기가공과 측정법을 알고, 각종 관의 기초 가공 및 요소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줍니다. 나사 절삭 방법과 강관나사 내기 및 조립, PVC관 접합 및 동관용접 등의 기술을 배웁니다. 배관작업의 기초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② 용접실습

일명 전기 용접으로 불리는 아크 용접을 배웁니다.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비드쌓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데요.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스펙터가 튀지 않도록 전류조절을 알맞게 잘 하는 것입니다. 용접실습 시간은 용접조건 설정 4시간, 직선비드 용접 60시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③ 공조·냉동설비 실습

공조 · 냉동이란 공기 조절 장치를 일컫는 용어로, 실내 온도와 습도 공기 청정도와 흐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이죠. 수강생들이 공조 · 냉동장치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시공 설비를 위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합니다. 또한 제작도면에 따라 공조 · 냉동장치를 제작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④ 설비자동제어 실습

공조 · 냉동설비 성능을 최대한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운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각 기기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공조 · 냉동에 관한 지식과 에너지관리취급에 대한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녹색산업설비 과정

조선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Q. 녹색산업설비과정의 설립배경이 궁금합니다

과거와 달리 친환경 기술과 산업설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뿌리산업을 새로운 최첨단기술과 접목시켜 이 분야에 최적화된 인재를 육성하고자 설립됐습니다. 올해 초 국회에서 '기계설비법'이 통과됐는데요. 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의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의미랍니다.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응하면서도 변함없이 중요성을 인정받는 기술을 차근차근 알려주는데 학과 설립의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녹색산업설비과정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5명의 수강생이 480시간 동안 공조냉동설비, 설비자동제어, 용접기초, 설비기초, 가스설비, 에너지관리설비 등을 배우게 됩니다. 녹색산업설비는 수처리플랜트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다가오는 친환경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더욱 잘 접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기술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다음 학기인 2기 수강생부터는 만 40세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분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나요?

퇴직한 군인, 회사원, 사업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강생 중 퇴직자가 절반인데요. 연령대도 50세부터 67세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 수강생들이 1기인데요, 다음 기수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연령대를 만 40세로 낮춘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취업 가능한 산업군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기업 기술팀과 시공 분야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시설관리자로 들어갈 수도 있죠.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취업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앞날이 매우 밝습니다.

Q. 중년층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아무래도 기업에 따라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 반대로 오랫동안 묵직하게 일해 줄 중년층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답니다. 즉, 이는 중년이라는 나이가 취업의 제한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때문에 본인이 배울 의지와 앞날을 개척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미래가 열려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미래의 수강생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현재 1기로 들어온 분들께서 아주 열심히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수강생 분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급한 성격 보다는 차분한 성격이, 성급하게 앞서가는 사람보다는 현재를 묵묵히 채워가는 사람에게 더 맞는 일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저희 과정에서 그 꿈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글 윤진아 | 사진 이용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플로리스트의 꿈’ 이뤄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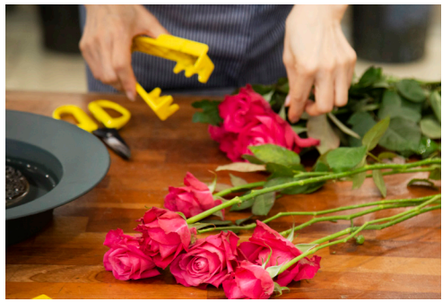




플로리스트는 꽃, 뿌리, 열매, 줄기, 잎 등 식물의 각 기관을 모두 활용해 작업한답니다. ‘준비한 꽃들의 균형미를 얼마나 조화롭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창조적인 작업인데요. 먼저, 김안나, 윤여경 님의 이야기를 통해 꽃장식의 매력을 들어볼게요!



꽃을 더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공간을 재창조하는 플로리스트가 유망직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인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수강료 부담을 쑥~ 내릴 수 있다는 사실!







김안나 님_ 수강생

제조회사에 다니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숨통을 틔워줄 취미생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2의 직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은퇴 걱정 없이 계속할 수 있는 직업이 흔치 않잖아요. 제대로 배워보자는 생각에 ‘화훼장식기능사’, ‘화훼장식기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대회에도 출전했는데, 무엇보다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는 걸 확신하게 돼 뿌듯합니다.



윤여경 님_ 수강생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스튜어디스과에 진학했지만, 오래도록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휴학과 동시에 평소 좋아하던 꽃꽂이를 배우게 됐는데,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하나하나 이수해나가다 보니 진로에 대한 고민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꽃꽂이, 꽃다발 포장과는 차원이 다른 화훼장식!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네요. 꾸준히 실력을 쌓아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학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미소꽃예술학원에서는 국비지원과정을 통해 구직자는 물론 재직자를 대상으로 '꽃장식'의 진수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신부에게 어울리는 부케 제작법은 기본이고, 쇼윈도 디스플레이나 행사장 테이블 데커레이션, 동·서양 꽃꽂이, 화관, 압화 등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꽃을 다루는 기본 지식을 먼저 알아볼게요!

플로럴폼(Floral Form)

물을 흡수하는 성질의 합성수지인 플로럴폼은 일정 시간 동안 꽃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꽃줄기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기의 크기에 따라 폼을 잘라서 세팅하는데요. 폼을 화기보다 아래로 세팅하면 플라워디자인 후 물을 보충할 때 밖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폼의 모서리 부분을 칼로 잘라 면 처리를 하면 꽃 꽂기가 한결 편하다는 팁도 기억하세요!

바인딩포인트(Binding Point)

꽃다발을 만들 때 한쪽 손으로는 꽃을 가볍게 쥐고 다른 한 손으로 꽃을 하나씩 추가하여 완성하는데, 꽃을 덧대는 지점이 바인딩포인트입니다. 굵은 줄기 다음엔 가는 줄기를 끼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꽃을 덧대는 것이 줄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노하우예요!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 같은 종류의 꽃을 4~5송이씩 모아 꽂는 그루핑(Grouping) 배열방식으로 덧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파이럴(Spiral)

꽃줄기를 한쪽 방향으로 차곡차곡 덧대는 방법입니다. 사선으로 줄기를 덧대어 줄기가 나선형 모양이 되게끔 해주는 건데요. 스파이럴로 줄기를 잡아나가야 많은 양의 꽃줄기가 서로 밀착돼 바인딩포인트가 두꺼워지지 않고, 완성 후 묶을 때에도 엉켜 부러지는 일이 없답니다.

센터피스(Center Piece)

테이블의 중앙장식물을 센터피스라고 합니다. 화기에 플로럴폼을 세팅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앵커테이프로 고정하는 것이 플라워 센터피스의 시작인데요. 메인 꽃을 앞쪽부터 배치하고, 양쪽 사이드에 플로럴폼이 대략 가려질 정도로 다른 꽃들을 꽂아줍니다. 센터피스를 식탁에 놓는 경우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 높이가 적당하며, 향이 너무 진하거나 꽃가루가 많이 떨어지는 소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방사형 배열

작은 화기나 플로럴폼에 무작위로 꽃을 꽂다 보면 줄기가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줄기를 넣다 뺐다 하면 폼도 으스러지고 원하는 위치에 꽃을 배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사형 배열 규칙을 지켜 줄기를 꽂는 것이 중요한데요. 폼 중심에 '가상의 점'을 찍고, 이를 중심으로 줄기를 꽂아보세요. 줄기가 엉키지 않아 꽃을 꽂기도 편하고 완성도도 높아집니다.



일상에 향기를 더하는 꽃, 취미 넘어 직업으로 영위하세요!



한승우 미소꽃예술학원 대표

손끝으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플로리스트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단순히 꽃집에서 꽃다발을 제작 · 판매하는 일을 넘어 요즘은 대형 건물의 그린 인테리어나 이벤트 · 전시 기획, 웨딩플래너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죠.

최근에는 화훼장식 산업이 발전하면서 플로리스트의 활동영역도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공간 디자인은 물론 광고 연출, 패션쇼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영역에서 플로리스트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에는 성별, 나이,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론과 실기 모두에서 기본을 탄탄하게 쌓아야만 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미소꽃예술학원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이수자 평가 A등급, 기관인증평가 우수훈련기관으로 인증 받은 47년 전통의 플로리스트 육성기관이에요.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과 실습 위주의 수업이 강점입니다.
생화 재료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걱정돼 시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보세요.
일반과정 수강료의 40%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화훼장식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은 미소꽃예술학원(www.misoye.co.kr)에서 확인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Point

누구나 신청 가능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유효기간 5년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 없이 5년간 사용 가능

훈련비 지원
저소득층 500만 원,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전액 지원

개인맞춤 수강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 수강

HRD-Net 실시간 확인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 실시간 확인

자부담 비율 동일 적용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자부담 비율 동일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훈련과정 수강 신청의 경우 140시간 이상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가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조 4,33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특별대책' 추진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 지원인원 확대하고,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최대 월 50만 원 X3개월)*'을 신설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 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기존→개선) :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즉시, (일반업종) 3개월 이상 →1개월

고용유지자금융자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수준)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952억 원)를 신설했습니다.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
* 융자절차(안) :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後 상환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소득 · 매출이 감소한 특고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50만 원× 3개월)'을 지급합니다. (5,700억 원)

* 예비비(9,400억 원)로 6월 1일부터 접수 후 2주일 내 1차분(100만 원) 지급 →3차 추경 통과 후 2차분(50만 원) 지급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

공공: 비대면 · 디지털일자리 산업안전 · 사회적경제 분야 빅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 산업안전: 제조사업장 30만 개소 안전보건정보 실태조사 및 결과 전산화(302억 원, 2,250명)
* 사회적경제: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서비스 · 조직현황, 지역현안 등) 조사 및 DB화(112억 원, 1,700명)

민간: 청년일자리 청년 디지털일자리 · 청년 일 경험을 지원하고(10만 명), 중소 · 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5만 명)

* 청년디지털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 지원 (4,678억 원, 5만 명)
* 청년일경험 : 청년을 단기채용하여 일 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 ·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 원 및 관리비〈인건비의 10%〉) 지원 (2,352억 원, 5만 명)
* 채용보조금: 중소 · 중견기업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채용 시 채용장려금 추가 지원(기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월 30~60만 원→(채용보조금) 6개월 이상, 월 80~100만 원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본예산〉9조 5,158억 원, 136.7만 명→〈추경안〉+3조 3,938억 원, +49만 명

생계비 융자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를 상향(1인당 2→3천만 원)하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본예산〉885억 원, 1.3만 명→〈현반영〉+218억 원, +0.5만 명→〈추경안〉+1,000억 원, +2만 명

직업훈련 실업자 · 무급휴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 직업훈련: 〈본예산〉 7,803억 원, 46.4만 명→〈현반영〉+376억 원, +4만 명→〈추경안〉+1,533억 원, +12만 명
* 생계비융자: 〈본예산〉 317억 원, 0.7만 명→〈현반영〉+111억 원, +0.1만 명→〈추경안〉 +963억 원, +1.8만 명

2.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인력양성 AI 대학원(8개소)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이 디지털 · 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을 지원했습니다. (+68억 원)

* 14개 관계부처가 21개 디지털 · 신기술 분야의 62개 인력양성 사업을 협업예산으로 추진 중

원격훈련 인프라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15억 원),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53억 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 우수훈련기관 585곳에 민간 LMS 임대료(6개월분, 1,800만 원)의 일부(50%)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의 2개 축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3조 원 수준 투자
- 앞으로 ①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②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 고용안정 ③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④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⑤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집중 투자

※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 · 확대하여 7월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확정 · 발표

3. 화재·폭발 등 고위험현장 사고예방 강화

사고예방 시설 지원 유증기 환기팬 · 가연성 가스 감지기 · 용접작업 불연포 등 화재 · 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712억 원, +2.2만 개소)했습니다.

* ▲유증기 환기팬: 300억 원 , 3천 개소 ▲가연성 가스 감지기: 120억 원, 3천 개소 ▲용접작업불연포 · 비상유도선: 80억 원, 8천 개소 ▲폭염대비 이동식에어컨: 200억 원, 8천 개소
* ▲패트롤카 운영 확대: +12억 원 (27→108대, +81대)

위험현장 밀착 관리 소규모 건설현장 · 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 안전기술 지원 등에 대한 밀착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72억 원)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31억 원, +200명 (61→92억 원, 200→400명) ▲소규모사업장 안전기술지원: +41억 원, +2.8만 회 (34.3→37.1만 회)

News





1 고용보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울 1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신청 건수가 약 12만 건 이상을 기록함에 따라,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1센터 직원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재갑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그간 구체적인 규모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특고 · 프리랜서의 실태를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인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2021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안착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업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시대' 토대 마련에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지난 6월 10일, 이재갑 장관은 국내 대표 여행업체 ㈜모두투어네트워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모두투어의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함입니다.

㈜모두투어네트워크는 올해 2월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여건 속에서도 임원 급여를 최대 70% 반납하고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양보와 협력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유급 휴업 · 휴직을 실시하였고, 5월부터는 유급 휴업 · 휴직 및 무급휴직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노사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두투어(여행업)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체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면 노사합의 후 유급휴업을 1개월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9일, 외국인 고용사업장인 ㈜조흥(경기 안산 소재)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코로나19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코로나19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전 자가격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입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수칙 준수여부를 매일 모니터링 하는 등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위생 및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 ·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숙사 등 주거환경 점검도 진행 중입니다.

4 138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확정 ·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신규 개발한 20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이미 개발된 NCS 중에 개선 작업을 완료한 138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6월 12일자로 확정 · 고시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으로 직업 · 직무 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이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지침서입니다.

이번에 개발 · 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클라우드플랫폼 구축, 수소연료전지제조, 스마트공장 시스템설치 등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산업 분야의 직무가 대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NCS 누리집(www.nc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NCS활용법'은 NCS 누리집 'NCS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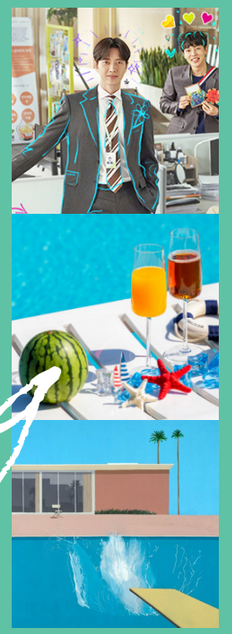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대형 3사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6 화재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월 18일,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은 지난 2016, 20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ealing

62 라떼는 말이야~ 나도 혹시 꼰대는 아닐까요?

66 오! 마이 컬러풀 경제용어

68 프로는 '품격 있게 퇴사' 합니다

70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래도 쉴 권리는 누려야하지 않겠습니까

74 휴양지에서 즐기는 이색 음료 이젠 집에서 즐겨요

76 겨터파크 시즌이 돌아왔다 땀 냄새, 이제 그만 관리 좀 합시다!

78 코로나 시대 첫 여름휴가,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82 애독자 모의고사

글 임기현 | 사진캡처 MBC '꼰대인턴' 캡처

라떼는 말이야~ 나도 혹시 꼰대는 아닐까요?

'라떼는 말이야'를 남발하던 꼰대 부장님이 내 부하 직원으로 입사했다? 이 괴상한 일이 벌어진 현장은 드라마 〈꼰대인턴〉입니다. 상사와 부하의 뒤바뀐 운명 속에서 '꼰대'와 '요즘 것들'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될까요? 아니, 이해를 할 수 있긴 할까요?



"제 밑에서 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준수식품에 인턴으로 입사하자마자 '핫닭면'을 기획해 위기의 회사를 그야말로 구렁텅이 속에서 구해낸 인물 가열찬(박해진 분)은 어디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인물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것은 물론, 팀원들에게도 매우 나이스한 부장으로 통하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턴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꿈에라도 볼까 두려운' 인턴을 만나게 되죠.

인턴의 정체는 '전 직장 상사' 이만식(김응수 분)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에게는 무조건 말부터 놓고 봤던, "라떼는 말이야~"를 입에 달고 살던 만식은 과거 가열찬이 인턴으로 입사했던 '옹골' 라면의 팀장이었는데요. 30년 동안 목숨을 바쳤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당한 후 여기저기 경비일을 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가열찬이 부장으로 있는 준수식품의 시니어 인턴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해고당한 만식의 사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오랜 만에 만난 '전 직장 꼰대 상사'가 가열찬에게는 눈엣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가열찬이 옹골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만식의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라는 말에 '어린놈의 시키, 다 발라버리겠어'라고 칼을 가는 만식. 이들의 뒤바뀐 운명은 과연 '만사형통'할 수 있을까요?

☺ 여기서 잠깐! 아직도 갑질 하십니까? 참말로 고루합니다만 …

만식의 갑질로 결국 퇴사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열찬. 상사의 갑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권위를 내세운 횡포보단, '수평적인 직장문화'가 훨씬 더 아름답겠죠?



“커피 네 잔만 타주세요. 이.만.식. 씨”
“지들이 타먹을 것이지.”



커피 심부름은 만식이 부장으로 있던 시절, 직장 내 직원들을 상대로 흔히 하던 갑질 중 하나였는데요. 시니어 인턴으로 취업한 후 막상 커피 심부름을 하게 되니 만식의 심정이 말이 아닌 듯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참지 못하고 ‘욱’하는 시점이 오기 마련인데요. 천하의 만식도 욱하는 걸 보니, 직장 내 갑질은 ‘커피 심부름’처럼 ‘업무 시간에 요청받으면 기분 엄청 나쁜’ 일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해도 업무와 관련 없는 심부름이라면, 스스로 멈춤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좋겠죠?



시니어 인턴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만식의 꼰대짓은 분출할 수가 없을 뿐이지 여전합니다. 그러나 꼰대짓과 상응하는 연륜은 그의 진가를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간 차곡차곡 쌓인 경력으로 준수식품의 위기를 순조롭게 넘기는가 하면, 가열찬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전 직장 상사를 인턴으로 만난다’는 설정은 현실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YES’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신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고 있는 건데요. 같은 업종에 인턴으로 재취업한 이만식의 경우라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걱정마세요.
나이 많아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노동부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 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 건데요. 지역 노후준비 지원센터를 통해 노후 준비 4대 분야(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 ·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답니다. 한편,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생애경력설계를 토대로 유형별 · 단계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구직자는 물론이고, 은퇴를 앞둔 재직자 역시 동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인력에게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인력의 사회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인데요. 크게 ① 사회공헌 기회 제공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사업’과 ② 퇴직 전문인력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비영리 영역에서의 공익적 사회서비스로 봉사적 성격이 강하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정 수준의 경력, 자격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예요.

고용노동부, 중장년 재취업을 이끄는 기업에게도 폭넓게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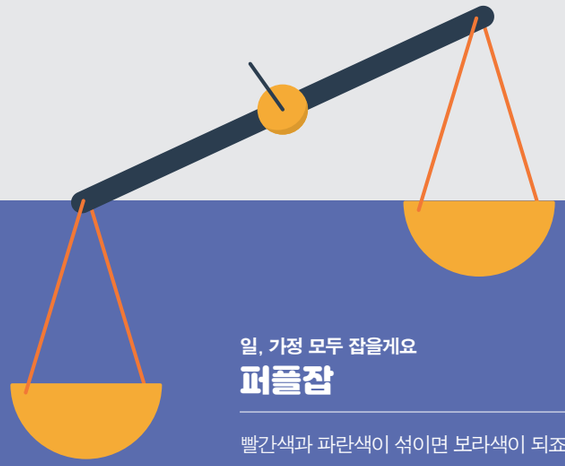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 ·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운영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건데요. 지원금액은 자그마치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이라는 사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장년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건데요.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대상자별 정책 〉 중장년 〉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참조하세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의 전문성 · 경험 ·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대하여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 유지했거나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기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 마이 컬러풀 경제용어

월요일 증시가 대폭락하는 경우를 두고 흔히 '블랙먼데이'라고 하죠? 경제용어에서 '블랙'은 부정의 의미, 화이트는 긍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용어들이 컬러와 결을 나란히 하고 있을까요?



덩치 큰 주식만 골라서

레드칩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해 홍콩에 설립한 우량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1990년대를 전후해 홍콩 주식투자가들이 만들어 낸 용어인데요. 원래는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통틀어 일컬었으나, 지금은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해 홍콩에 설립한 기업들 가운데 우량기업들의 주식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국한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의 레드칩은 약간 의미가 다른데요. 남한과 북한의 협력 주식(경협주)이나 러시아 주식 등처럼 북방 관련 주식을 레드칩이라고 불러요.

일, 가정 모두 잡을게요

퍼플잡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보라색이 되죠? 여기서 착안한 경제용어가 바로 '퍼플잡'입니다. 가정을 뜻하는 빨간색과 일을 뜻하는 파란색을 혼합하면 보라색이 나오는 것처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형태를 조절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무제도'를 뜻하는 말로, 고용노동부의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이 여기에 속한답니다.

지구를 지켜라

그린오션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블루오션'이었다면, 그린오션은 친환경에 핵심 가치를 둔 신경영 패러다임을 일컫습니다. 환경 · 에너지 ·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경영'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급속화되면서 그린오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색깔은 예쁜데, 내용은 후덜덜

핑크슬립

미국에서 해고통지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노동자에게 해고 통지를 할 때, 분홍색 종이에 해당 사실을 적어 급여봉투와 함께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핑크슬립의 시초는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Ford)'입니다. 업무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흰 종이,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분홍색 종이를 건넸다고 하죠. 해고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일자리 정보를 구하는 행사 역시 '핑크슬립 파티'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핑크슬립 파티는 불경기 때마다 뉴욕 월가에서 유행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직후에도 유행한 바 있어요.



대신 술 마셔줄 사람?!

흑기사

게임을 하다 벌칙에 걸리면 벌칙을 대신 수행해 줄 흑기사가 간절해지기 마련인데요.
흑기사는 경제용어에서도 통용되는 명칭이랍니다. 어떤 기업이 적대적 인수 · 합병을 진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때 자기에게 우호적인 제3자를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흑기사'라고 부른답니다. 즉, 경영권 탈취를 돕는 제3자를 말하죠. 반대로 백기사는 매수대상기업의 경영자에게 우호적인 기업 인수자를 말해요!



프로는 '품격 있게 퇴사'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직서를 품고 산다고들
하지만, 고이 품어둔 사직서를
꺼내는 순간 우리가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답니다. 떠날 때
아름다운 퇴사 예절 5계명을
알아볼게요.

1계명
퇴사에도 예고가 필요해요

설마 어느 날 갑자기 "저 내일부터 출근 안 합니다"라고 통보하는 분은 없겠죠? 퇴사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은 '예고제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퇴사일을 기점으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예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퇴사 의사 전달 시기는 '퇴사하기 한 달 전'이지만, 업무가 복잡하다면 이를 고려해 퇴사시기를 결정하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담당할 후임자가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2계명
떠나는 이유에 '묵은 감정'은 솎아내세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업무 자체보다는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퇴사 이유를 묻는 상사에게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그간의 일들을 낱낱이 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만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팀장이 유독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서', '보기 싫은 동료가 있어서' 등 사사로운 감정들은 어쩌면 '이성적이지 못한 나'에게서 발현된 것일 수 있어요!

3계명
나의 퇴사소식은 직속상사에게 가장 먼저 말해요

내 위로 팀장, 그 위로 실장, 그 위로 부장, 그 위로 대표….
도대체 누구한테 나의 퇴사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야 할까요? 이론적으로 생각하자면 나의 직장생활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대표에게 바로 전해도 문제없을 것 같지만, 이론과 실전은 늘 다른 법입니다. 팀원의 퇴사소식을 가장 늦게 알게 된 직속상사의 심정은 어떨까요? 좋든 나쁘든 가장 밀접하게 나의 업무를 공유했던 직속상사에게 먼저 퇴사소식을 알리고, 직속상사가 다른 중요 인물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세요.

4계명
역제안에 대비하세요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반드시 퇴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퇴사 이유에 대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다면 굳이 퇴사를 고집하지 않아도 좋겠죠?
퇴사를 이야기할 때 역제안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역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낮아서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줄 의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연봉 수준으로 타협할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죠.

5계명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세요

인수인계서 작성은 퇴사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말'이란 것은 결국 공중으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죠. 따라서 인수인계서는 꼼꼼히 작성할수록 퇴사 후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불필요한 전화를 줄일 수 있는데요. ①업무의 전체 개요 ②중요 관련자의 연락처 ③디테일한 업무 처리 방식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투고 헤어지는 연인도
"잘 살아"라는 마지막 인사는 남기는 법이죠?
동고동락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퇴사자의 마지막 예절'에 속한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 정도는 잊지 말아요!

글 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래도 쉴 권리는 누려야하지 않겠습니까





바야흐로 여름휴가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 폭염주의보는 이미 6월부터 시작됐는데요.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땐, 당연히 쉬엄쉬엄 일해야 안전하겠죠?

Q1

중소기업 입사 두 달 차 신입인데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차를 쓰려고 했더니, 신입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다며 못쓰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전 달에 한 달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3개월을 만근해야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이게 정말인가요?

A_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 시에는 1년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에서 ①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했다면 익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②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대체제도 적용으로 이미 소진되지 않은 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③그 사용시기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④적어도 3개월을 만근해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정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부여기준을 제시하고 대체제도의 적용 등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상적인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입사한 지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선사용을 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부여받은 일수를 초과하여 선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으나(사용자 동의하에 무급휴무 가능) 노사 간의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서 선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이를 당연한 권리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초과사용 의미) 제도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전제로 노사간 합의 등으로 배려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만약 중도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초과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미사용일수에 대해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정산하여 별도 지급하게 됩니다.

Q2

입사 시 여름휴가비 지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름휴가 시즌이 코앞인데, 갑자기 사장님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올해부터 여름휴가비 제도를 없앤다고 합니다. 애초 입사 때 들은 내용과 달라서 좀 허무한데요. 휴가비 지급에 대해 입사 전후 말이 달라지는 경우, 회사에 항의하거나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도 휴가비 명목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A_ 사용자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할 임금은 그 금액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사용자는 정해진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에서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하거나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자는 ①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여름휴가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한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함을 다시 한 번 안내하고, ③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비 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예컨대 "여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거나 "여름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등으로 지급 결정권을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당초 근로계약서상 약정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상호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퇴사를 고려하게 된 경우, 근로자는 일방적 근로조건의 변경을 이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 행위 자체는 개인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나, 사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①실제 근로조건과 당초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상이로 인한 퇴사를 주장하거나 ②여름휴가비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퇴사(실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거나 장래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 포함)를 주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3 엊그제 만난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저 역시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음성판정이 나왔으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2주 후 출근 당일, 회사 측에서 여름휴가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아니었으므로 자가 격리 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였는데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A_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확진환자와 접촉한 접촉자는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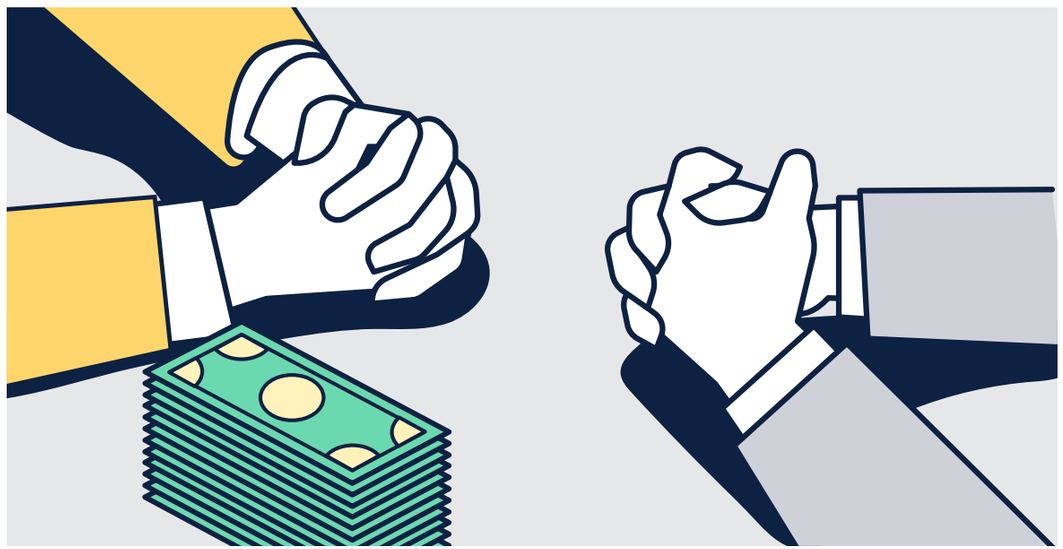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강제사항은 아님), 다만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①확진환자와 직접 접촉하여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무급으로 격리기간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며, ②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나 유급휴가 제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내용에 따라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③근로자는 본인의 신청으로 유급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회사는 연차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음), ④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지원이 있음을 안내하고 유급휴가 부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이나 격리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휴업 등을 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사례에서 회사가 부여하는 여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복지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① 여름휴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가 격리와 전혀 관계없는 제도임을 알 수 있고, ②2주간의 자가 격리를 했다 하더라도 여름휴가 관련 규정이나 관례에 따른 부여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자는 여름휴가 관련 규정이나 관례에 별도의 휴가일수 부여 기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여름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 정보를 제공하고 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4 일 년에 한 번 있는, 고대하던 연봉협상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간 회사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몇 년간 연봉동결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회사가 어렵다며' 동결을 제안해 옵니다. 그동안 일도 열심히 했고 승진도 여러 번 했는데, 대리 때 받았던 연봉을 차장이 된 지금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못내 섭섭합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기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은 적도 없어 결과적으로는 약속된 연봉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승진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일은 많아졌는데 대표는 아쉬운 소리만 계속하니, 협상결렬을 이유로 이직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협상결렬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_ 사례에서 매년 연봉협상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연봉이 수년간 동결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연봉의 동결은 그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례에서 ①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②별도의 상여금 삭감이나 반납 등에 대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년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③이직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자는 먼저 연봉협상 과정에서 수년간 반복된 동결의 부당함을 언급하고 증가한 업무량이나 실적에 근거한 연봉의 합리적 조정과 상여금 지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조율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고 동시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양지에서 즐기는 이색 음료
이젠 집에서 즐겨요

날이 더워질수록 차가운 음료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도 좋지만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이때,
휴양지 느낌이 절로 나는 이색 음료라면 더 좋겠죠?

하와이를 닮은
레모네이드 Lemonade



레몬, 물, 설탕으로 만든 보편적인 음료 중 하나입니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아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마시는데요. 1,500년 전 이집트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용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이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차려놓고 팔기도 한다고 하네요.

1. 얇게 슬라이스한 레몬과 얼음, 사이다, 그리고 길쭉한 투명컵을 준비하세요.
2. 슬라이스한 레몬을 3~4개 정도 컵 벽에 붙이고 얼음을 컵 안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3. 사이다를 부으면, 근사한 레모네이드가 완성!
   *민트를 넣으면 훨씬 톡톡 쏘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에메랄드빛 해변에 온 듯한
망고주스 Mango

미얀마, 인도, 베트남, 태국 등 뜨거운 나라를 원산지로 삼았던 망고가 이제는 제주도에서도 재배되고 있죠? 한 입 베어 물면 혀 속 깊이 스며드는 망고의 달콤함은 '주스' 형태로 바뀌었을 때 배가 된답니다. 망고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주저하게 된다면, 팩에 들어 있는 냉동 망고를 사용해보세요. 가성비 좋은 망고주스를 여름 내내 즐길 수 있답니다!

1. 냉동망고를 적당히 해동시킨 후, 믹서기에 넣으세요.
2. 오렌지주스 또는 망고주스를 넣은 후, 믹서기를 작동시킵니다. (달지 않게 하려면, 주스 대신 물로 대체하세요)
   *취향에 따라 우유를 적당량 넣으면, 훨씬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빨간 석양을 닮은
수박 셔벗 WaterMelon

타국의 석양을 바라보며 하는 저녁식사는 휴양지에서의 판타지를 충족해주곤 하는데요. 빨간 석양을 닮은 수박은 4,000년 전 이집트를 시작으로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순으로 퍼졌다고 하죠. 여름이 되면 일순위로 떠오르는 수박! 더 시원하게 먹으려면 수박 셔벗이 제격입니다.



1. 씨를 걸러낸 수박의 빨간 속살을 믹서기에 넣습니다.
2. 설탕 또는 꿀을 2스푼 넣은 후, 레몬즙 1스푼을 추가해 믹서기를 작동시킵니다.
3. 주스 형태가 된 ②를 용기에 담고 냉동고에 약 2시간 보관합니다.
4. ③을 꺼내 포크로 서걱서걱 긁어줍니다. 다시 냉동고에 2시간 보관 후 포크로 긁어주면 끝!
   *수박셔벗 위에 민트를 살짝 올리면, 손님 대접으로도 손색없어요!



안 그래도 더운 날씨 때문에
괴로운데, 붐비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허락 없이 개장한 겨터파크 때문에 더
괴로우신가요? 겨터파크는 막을 수
없어도, 조금만 신경 쓰면 냄새는
막을 수 있습니다!

겨터파크 시즌이 돌아왔다

땀 냄새, 이제 그만 관리 좀 합시다!

땀은 '태초에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겨드랑이에서 흥건하게 나는 땀을 워터파크에 빗댄 말 '겨터파크'는 여름의 대명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겨드랑이 땀 냄새를 논하기 전에 냄새의 출처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몸 곳곳에서 나는 땀의 출처는 '아포크린 땀샘'입니다. 노폐물을 배출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체질적으로 아포크린 땀샘이 많은 사람이 땀의 양이 많긴 합니다만, 사실 땀 그 자체만으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땀 냄새의 시작은 '땀과 세균이 만난 그 순간'부터입니다. 보통 땀을 흘린 후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땀 성분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지방산이나 암모니아로 변했기 때문이랍니다.



겨드랑이 냄새 이렇게 잡아요!

젖으면 민망하기 그지없는 겨드랑이 부분에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아포크린 땀샘이 집중 분포해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부위에 비해 냄새가 유독 심한 이유는 겨드랑이 피부가 겹쳐 있어 통풍이 쉽지 않은 까닭이라고 하네요. 아포크린 땀샘의 집중 분포와 겹쳐 있는 피부 때문에 땀 양도, 냄새도 심한 겨드랑이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겨드랑이 털을 정리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털이 있으면 털과 땀, 피지가 엉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고지방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이 높은 식품은 땀샘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냄새가 너무 난다면, 옷을 자주 갈아입고 겨드랑이 냄새제거용 제품을 쓰는 것을 추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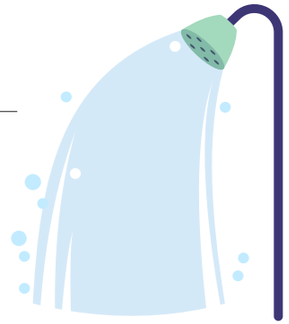
나만 아는 뾰루지 '등드름'

땀이 안 나는 부위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등에 난 땀'은 땀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등목을 하지 않는 한 통풍 자체가 어려운 신체부위이기 때문인데요. 등에 난 여드름이라고 해서 '등드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땀띠 예방을 위해선 땀 흡수력이 뛰어난 순면 소재의 옷을 입을 것을 권장합니다. 목욕을 할 때는 자극 없는 비누를 사용하고, 차가운 물로 신체 표면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만약 땀띠가 발생했다면, 오이팩 마사지를 해보세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꼬릿꼬릿 발 냄새와 절교하기

땀에 세균이 증식하는 순간 냄새가 나는 것은 '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습도로 땀이 차 축축해진 발가락과 발바닥은 여름은 기본이고 사시사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신체 부위인데요. 통풍이 용이하지 않다보니 세균의 2차 감염도 빠르게 진행되곤 하죠. 땀이 날 때마다 양말을 갈아 신을 수도 없고 통풍 잘 되게 슬리퍼를 신고 출근할 수도 없다면, 잠들기 전 녹차 티백을 기억하세요! 녹차 티백 3개를 우려낸 물에 10~20분 족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옴마나! 깨끗이 씻었는데도 냄새가 난다고요? 자주 씻는데도 땀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평소 샤워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아서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귓바퀴 뒤쪽, 목 뒤를 꼼꼼히 씻어보세요. 이 부위에 남아있는 피지가 악취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코로나 시대 첫 여름휴가,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첨벙 소리가 귓가에 〈더 큰 첨벙〉

한 번쯤 보셨을 이 작품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더 큰 첨벙'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수영장, 수영장 뒤로 차분하게 내려앉은 선홍빛 건물, 그리고 그 앞에 홀로선 빈 의자가 휴양지의 어느 날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얼어붙은 듯 움직임 하나 없는 수면 위로 튀어 오른 '첨벙거리는 물살'은 금방이라도 수영장에 뛰어들고 싶은 한여름날의 우리들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이 작품의 진가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첨벙거리는 물살'에 있습니다. 작가는 "물이 튀기는 모습을 그리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을 들였는데요. 고작 2초 남짓 지속되는 물살에 무려 2주간 매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존재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의 것들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으신가요? 시간에 쫓기는 일상의 반복이었다면, 이번 여름휴가는 사라져버릴 찰나의 것들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1년 만에 돌아오는 여름휴가인데! 맘대로 여행도 못하고!
휴가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벌써부터 화내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자자, 이번 기회야말로 자아통찰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압니다만.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용기 〈시절과 기분〉

김봉곤 작가가 2018년 봄부터 2019년 여름까지 발표한 작품 6편을 엮은 소설집입니다. 첫사랑, 첫 연애, 첫 키스 등 유의미한 '첫'들의 순간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표제작인 〈시절과 기분〉은 첫 여자 친구였던 혜인에게 끝끝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시절 '나'의 서글픈 기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작품 〈그런 생활〉에선 정체성을 드러내는 화자의 용기가 비로소 고개를 들죠. 숨기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 우리는 용감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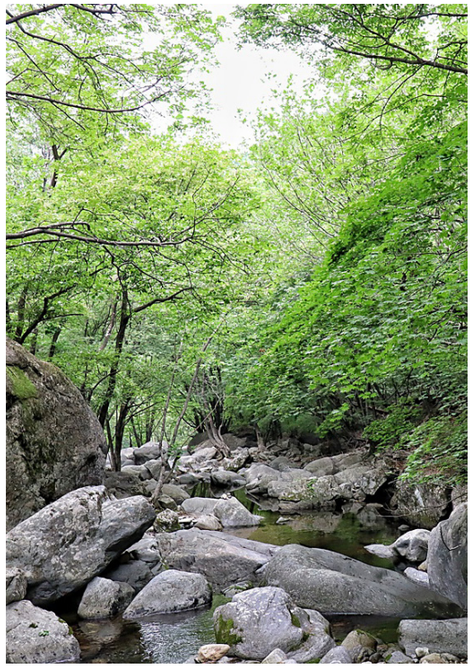
위로가 필요한 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내가 뭘 원하는지 나조차도 모를 때 느끼는 답답함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곤 하죠.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문 고전, 철학, 역사, 시,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에서 가려 뽑은 130여 편 '인생의 문장들'이 소소한 위로를 건네는데요. 어쩌면 우리에겐 대단한 위로보다 사사로운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번 여름휴가에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내느라 지친 '나'의 마음을 다독여주세요.



지친 심신 달래줄 〈웰니스 관광지 9곳〉

인파가 적을 것! 여름휴가지를 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관광지 9곳을 선정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나폴리농원', 경북 김천의 '국립김천치유의숲' 등이 그 주인공인데요. 선정된 장소들 모두 공기가 맑고 밀집도가 낮아 탁 트인 자연 속 힐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올 여름휴가지는 아홉 군데 중 하나로 정해봄직은 어떨까요?



차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가평 어비계곡〉

자동차에서 먹고 자며 캠핑을 즐기는 '차박' 여행이 부쩍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경기관광공사가 차박하기 좋은 곳으로 가평에 있는 어비계곡을 추천했습니다. 홍수 때 물고기(魚)가 산을 뛰어넘었다(飛)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 속에 갇혀 있던 물고기들이 어비산을 넘어 본류인 한강으로 돌아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답니다. 차박 장소는 어비계곡을 따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이것이 손맛이다! 〈보릿돌 갯바위〉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호미곶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은 현지인들에게 '보릿돌 갯바위'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보릿돌은 '물속에 잠겨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2개의 바위'를 칭하는 말인데요. 몇 년 전 마을과 보릿돌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이면서 현재의 복합낚시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거리두기 낚시가 가능해 나 홀로 낚시터로 그만이에요!

쏘가리 매운탕 먹고 싶은 날엔 〈탐진강 부산교 아래〉

루어낚시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서 1.5km 정도 북서쪽에 있는 탐진강 부산교 아래를 추천합니다. 물 흐름이 잔잔한 곳을 찾아 채비를 던지면 쏘가리가 입질을 하는 곳인데요. 외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라 한결 더 호젓한 낚시를 즐길 수 있답니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기쁨이 더 커지는 낚시! 한계와 기쁨을 동시에 경험해보시죠!

2020년 7월호

애독자 모의고사

100

성명		전화번호	

모든 해답은 〈월간 내일〉 7월호에 있습니다.

1.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처럼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❶ 아르바이트생
❷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❸ 일반근로자
❹ 계약직

힌트
8-11페이지를 살펴보세요.

2. 기댈 곳 없는 특고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은 '이것'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가입되어 있으면 코로나19 등의 위기상황에서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❶ 고용보험
❷ 국민연금
❸ 산재보험
❹ 건강보험

힌트
16-19페이지를 살펴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의고사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엽서로 제출 시 엽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 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 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 위 방법대로 다시 시작!

6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이시은 님 김연자 님 신순남 님 박용주 님
민병보 님 이상현 님 송산리 님
한영아 님 오현진 님 정혜진 님

* 퀴즈 당첨자 분들껜 7월 중으로 커피 쿠폰을 선물해드립니다.

〈월간 내일〉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www.labor21.com

1.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엽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2.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com'을 입력하세요.

3.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시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세요.


고용노동부